

부활 제 4 주일(성소의 날)

제 1 독서 : 사도 13,14.43-52

제 2 독서 : 묵시 7,9.14b-17

복 음 : 요한 10,27-30

순정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요한 10,29).

강론

“흠없는 제물을 바치게 하소서”

양 경 배 신부 / 성소국장

안녕하세요? 작년 이때쯤 편지를 드렸던 베네딕도입니다. 그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작년에 편지를 드렸을 때의 심정은 사제직에 투신하고 싶은 생각과 ‘내가 어떻게 감히’라는 생각의 갈등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저를 이끌어주시는 아버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작년 성소 주일의 주제인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바로 제가 꼭 해야 할 말이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제가 되는 것을 원하셨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항상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와는는 오히려 일반 대학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적 때문이지요. 제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나 법대에 합격할 정도가 되니까 부모님께서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소위 출세하는 것이 의사나 법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저의 부모님께서도 막상 실력이 좋은 저를 신학교에 보낸다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보다 부족한 점이 많은 동생 보고는 자주 신학교를 종용하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는 “사제적이란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 새로운 계약의 봉사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하느님께 제사의 제물을 바치는데 “흠없는 짐승, 고운 밀가루, 누룩없는 빵”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할 사람을 봉헌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쓸만한 사람은 사회의 출세길로 보내고 뭔가 부족한듯 보이는 사람은 ‘신학교나 가라’ 하는 태도가 말이 됩니까? 적어도 참신양인이라면 “이 몸이 무엇이기에 이렇듯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대로 바칠 따름입니다”(1 역대 29, 14-17)라는 자세로 가장 신심있고, 똑똑하고, 멋진 아들을 바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느님 아버지, 저의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의 마음도 돌려주십시오. 진정 사제직에 봉헌되는 제물은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로마 12, 1) 이끌어주십시오.

저는 이번 성소 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이사 6, 8)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성소 주일에 베네딕도 올림

소리

“고래싸움과 새우등”

일본사람들이 쌀(米) 자를 붙인 나라를 우리 선인들은 왜 아름다울 미(美) 자를 붙여 미국(美國)이라 불렀을 까.

그 나라의 산악 경치가 좋아서인가, 그 나라 사람들의 얼굴이 예뻐서인가, 아니면 마음씨가 고아서인가.

최근 이 나라를 휩쓴 흑인 폭동에서 대부분 불쌍하다고 해야 할 우리 교포들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에 접하면서 먼저 받는 느낌은 경악과 분노였다.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만큼이나 억울하고 야속하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다. 그래서 우방이니 혈맹이니 하며 우리쪽에서는 믿고 또 고맷게 여겨오지 않았던가.

LA에만 40여만이라는 우리 교포들. 많은 돈을 가지고 도피성 이민을 간 팔자 좋은 교포들이야 소수에 지나지 않을 터. 거리가 가난을 좀 면해보고자 하여, 더러는 망명살이 처럼 만리 타국을 찾아간 사람들이다.

휴일도 없이 밤잠을 설치며 10년, 20년을 고생한 끝에 겨우 터전을 잡았거나 아직도 가난한 셋방살이를 한다는 우리의 혈육들이다.

다시 일어서자고 평화의 대행진을 벌이고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지만 그게 어디 쉬운 노릇인가.

한인타운이 불타고 있을 때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많은 미국인들은 이제 재기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교포들을 성의껏 도와야 할 때다. **진**

순정이 산책



“세계는 영원한 가치를 증거할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존경하는 형제 주교 여러분, 전세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사도 13, 52). 우리는 이 말씀을 부활 제 4주일의 전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의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들(마태 13, 44 참조)이 불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실제로 모든 공동체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신비스러운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넘치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성서의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체험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요한 16, 23 참조)을 확신하며, 교회는 해마다 성소의 날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올해 성소의 날을 생각하며 온전한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 사랑에 투신하는 신자들(신명 6, 5; 마태 22, 37; 마르 12, 30), 수도자로 축성되어 살아가는 특별한 형태의 그리스도인 생활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신자들, 특히 그러한 젊은이들이 불어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사제 신분이나 수도 서원에서 드러나며, 수도원이나 사도적 공동체의 선택 또는 재속 신분 등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자인 수많은 남녀 수도자들에 의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지탱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교회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성화와 복음 사업을 위한 누룩이 되고자 했던 수많은 축성된 사람들로 부터 귀중한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 주교님들께서 특별히 성직자와 평신도들 가운데서 축성생활에 대한 인식과 존경심을 증진시켜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학교에 수도 축성의 가치에 대한 강좌와 교육이 결여되지 않도록 보강해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저는 사제들이 이 고귀하고 드높은 이상을 젊은이들에게 제시하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은총으로 풍요롭게 뿌려진 성소의 씨앗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리교사들에게 권장합니다. 교

리와 끊임없이 연관을 지으며 주님께서 당신 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은총을 가르치십시오.

살아 있는 신앙으로 굳건해진 그리스도교적 감성을 믿고 저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주님께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집안에 내리는 하느님 은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수도생활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과 저술가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톨릭 전통에 따라 축성생활의 신학적 중요성을 올바르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저는 교육자들에게 권유합니다. 수도생활이든 재속회 생활이든 축성생활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교회와 사회에 봉성한 위대한 인물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수도 가족들과 재속회에 말씀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건설적인 성소 사도직은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주님께 봉사하는 기쁨에 가득 찬 생활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또한 관상수도회 회원들에게 권고합니다. 영적 쇄신의 참된 비결과 축성생활의 사도적 성과는 기도 안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는 사실을 숙고하십시오. 관상생활이 지닌 영성적 교리적 유산은 매우 풍요로운 것이며, 세상은 우리 시대가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그 풍요로움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분의 껍에 넘어가십시오.” 옛 예언자의 말씀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껍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여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예레 20, 7).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복음의 빛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성생활의 위대한 근거를 동정 마리아께로부터 찾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 5)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성소의 어머니께 간구합니다.

오 동정 마리아여, 당신께 우리의 젊은이들을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당신의 아들을 더욱 가까이 따르도록 부름 받은 젊은이들을 맡깁니다. 당신이 천사의 초대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내 친구들 피아노

아동의 입장에서 서서 성심껏 지도하겠습니다.
음악 이론 지도 철저
평화 주공APT 옆 부채공장 내
교육상담 ☎ 85-0484
김 아 셸 라

미드여성헬스클럽

생활체조, 에어로빅,
비만 상담
관장 시 선 희(아네스)
☎ 254-0319
오거리 시집가는 날 옆

삼오건축자재상사

시멘트·목재·합판·내장재
가설재·스치로폴·스레트·골재
김 기 완(도마)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69-13
(삼호아파트 앞)
☎ 224-3535~6

정 연 머리방

신부화장전문, 특수헤어스타일,
컷트, 파마, 피부미용관리
효자동 제일여객 앞 골목
조 정 연(글라라)
☎ 223-4701

5분교리㉠

“가톨릭의 구원 예정론”

“인간이 순종치 아니하여 주의 사랑을 잃었어도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주를 도로 찾아 얻게 하셨나이다”(성찬기도 제4양식). 이 기도는 미사 때 사제가 외는 아름다운 경문이다. 첫인간의 범죄 이후 세상은 악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시려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계획과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시는 ‘남아일인 중천금’의 확실한 모범을 보여주신다.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의 시초는 자유의 남용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당하는 많은 슬픔은 결코 원죄의 결과만은 아니다. 개인의 자발적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특별한 괴로움을 준다(거짓, 미움 등). 이런 개인적 인간의 죄는 미리 정해지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죄와 원죄와는 구별되어야 하니 개인적으로 중대한 죄를 범하지 않고서 원죄중에 죽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로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한 것은 인간이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구원선물을 자유의사로 원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원의까지도 일으켜주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이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인 자비로운 선물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원하는 이면 누구든지 제외되지 않는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묵시 22, 17). 이것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 예정이다. 칼빈교에서는 구원될 사람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한다. 가톨릭의 구원 예정은 이와는 달리 모든 이가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 참고 자료 : 그리스도와 구원(책)

교 구 소 식

※ 성소의 날 행사 : 5월10일 오전10시 해성학교 윤호관, 대상-각 본당 중고생

1. 페루선교사 파견미사 : 5월13일(수) 오후7시 중앙 성당, 집전-이병호 주교와 교구 사제단.
2. 교구장 본당 사목방문 : 5월15일(금) 오전10시-전동 성당, 오후2시-평화동 성당.
3. 축! 결진 : 5월17일 오전10시 서신동 성당.
4. 대학생 연합회 소속 단위 대학 지도신부 : 대학생 연합회-박인호 신부, 전북대-강민찬 신부, 전주대-김순태 신부, 우석대-김병엽 신부, 예수간호전문대·기전여자전문대-정양현 신부, 전주교육대·전주공업대-김동준 신부, 원광대·원광보건전문대-김교동 신부, 군산대(수산대)·산업대-김희남 신부, 개성간호전문대·군산실업대-박찬길 신부, 남원서남대-경규봉 신부, 백제전문대-박인호 신부.
5. 교리교사 체험수기 공모 : 주제-초·중·고 학생 및 교사들과 관계된 체험수기, 자격-전·현직 초·중·고 교리교사, 마감-5월23일(토), 제출-교육국.
6. 장기 근속교사 추천 : 대상-현직 교리교사로 92년 5월로써 만5년, 7년, 10년이 되는 분, 마감-5월16일(토).
7. 전국 교육국 수녀 모임 : 5월12일-13일 천호 피정의 집.
8. 통일일사 조성만(오섭) 추모미사 : 5월15일(금) 저녁7시30분 덕진 성당, 강사-김낙중 교수.
9. 범석규 신부 회감미사 : 5월14일(목) 오전11시 창인동 성당.
10. 남원 성당 성전 보수를 위한 후원제 맞이 나눔잔치 : 5월9일-12일 남원 성당.
11.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5월11일(월) 오후7시 흥복국.
12.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5월17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5월11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사랑의 하모니

※ 축! 영명 : 14일(성마리아) 범석규, 이성우 신부님.

요십이 (979) 김병오



사제서품 33주년을 맞이한 범석규(마티아)신부님회감연!

- 일시 : 1992년 5월14일(목)
- 시간 : 제1부-미사(오전 11시)
제2부-축하식(정오 12시)
제3부-축하연(오후12시30분)
- 장소 : 창인동 성당 ☎ 855-2325

평화동 바자회 당첨번호

- 대상 : 30704
 특상 : 35786
 1 등 : 01502
 2 등 : 30900, 31290
 3 등 : 08274, 26453, 23436
 행운상 : 948, 318, 010, 987, 444, 295, 846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성소모임

대상 : 청소년 교육에 헌신할 수사가 되고자 하는 남성
 때 : 5.16(셋째 토요일)오후4시
 곳 : 서울 본원(02)324-8356
 수원 수련소(0331)293-9140
 * 문의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
(주) 삼신전북특약점
 금고, 목·철재책상, 의자, 쇼파, 컴퓨터 책상
 중앙시장 뒤 노벨탕 옆
 ☎ 253-3361~2
 정광호(안셀모)

농협계약판매·카드분할판매
서해수족관
 고가구대리점 ☎841-5440,
 동부시장노동청 위 ☎842-1100
 이규홍(안토니오)
 채숙녀(세실리아)

황수경 산부인과
 여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황수경(크리스티나)
 이승렬(엘리야)
 관통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골목
 ☎ 84-7272

루벤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조민구(프란치스코)
 유해미(마리아)
 효자동 한양운남아파트상가
 ☎ 224-169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승남

1. 오늘은 성소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2. 사목회장(대행) 임명: 김동주(유스티노)-앞으로 수고부탁 합니다. 전임 노송남회장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 장우회: 공식미사 후 4. 꾸리아: 후2시
 4. 부녀회 단합대회: 목표 유달산 11일(월)
 5. 자모회, 부녀회, 성심회: 12일(화) 어머니미사 후
 6. 경로잔치: 17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7. 견진성사 신청: 31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8. 노송신협 남·여 직원모집: 자격·병역필, 고졸이상, 만24세이하, 운전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문의전화 85-2570.
 9. 금주청소: 중노15, 16번 차주청소: 중노17, 18번
- ☐ 지난주 봉헌금: 931,030원 ☐ 교무금: 814,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인

1. 성소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2. 견진성사 신청서 접수: 사무실
 3. 첫 영성체 교리: 9일부터 오후3시
 4. 성마리아 묵상 세미나: 11일~12일 오후7:00~10:30
 5. 안나회 호도관광: 14일 오전10시 남원 광한루 육목정
 6. 성시간: 14일 저녁11시.
 7. 회합: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후2시)
③청년회(공식미사 후) ④성우회(17일 공식미사 후)
- 금주전례: 황만규 독서-지혜용씨 부부
 봉헌-원진희씨 가족
차주전례: 유복규 독서-김현덕씨 부부
 봉헌-박상기씨 가족
- ☐ 지난주 봉헌금: 595,360원 ☐ 교무금: 1,166,4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동욱

- ※ 오늘은 부활제4주일 및 성소의 날: 모든 미사중 2차헌금
1. 말씀에 맛들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합시다: 성서교실-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2. 장년회: 16일(토) 저녁미사 후.
 3. 성가정,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봉성체: 12일(화)
 5. 예비지를 인도합니다: 교리는 매주 공식미사 후.
 6. 성모의 밤: 23일(토) 저녁8:00 7. 금주청소: 모든 성인의 오후Pr.
 8. 성서읽기: 민수 1장~20장 9. 금주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 이육동 ②강경자 봉헌-남창덕, 강순용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김봉길 ②주영혜 봉헌-김한철, 이수복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278,350원 ☐ 교무금: 317,5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 부활제4주일! (성소의 날, 2차헌금있음)오늘은 성모성월!
1. 회의: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2시 ③성심회-5월13일(수) 오후2시 ④꾸리아-다음주일(5월17일)오후2시 ⑤성모회-다음주일(5월17일)공식미사 후
 2. 모임: 전례부-5월21일 목요일 오후8시. 3. 알림: ①봉성체-5월20일(수) ②성소의 날 행사-5월10일(오)초·중·고생, 장소-해성학교윤호관 ③교무금-교무금 미납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것이오니 청상껏 봉헌합니다.
 4. 감사: 본당 단합대회에 참석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분들과 수일간 내 일같이 봉사해 주신 성심회 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지난주 봉헌금: 696,800원 ☐ 교무금: 154,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점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성소자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성소자들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협조바랍니다.
 2. 성소주일 행사: 해성학교 윤호관(10시-오후5시)
 3. 성전건립 기금위한 바자회 준비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4. 청소 봉사: 1구역 3번, 4번, 5번.
- ☐ 지난주 봉헌금: 651,500원 ☐ 교무금: 965,000원

*** 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삼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태

- ※ 오늘은 성소주일(사제양성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이달은 성모성월: 각Pr. 별 저녁미사 후 기도(Pr. 별 해당순서 게시판 참조) ☐ 교무금: 1,768,000원
1. 성소의 날 행사: ①초등부-인보성체수도회 방문 ②중·고등부-해성학교 윤호관(오전10시부터) 2. 금주: ①자모회(오전10시) ②일치의 모후 Cu(오후2시) ③유치원 놀이터 이전(오후2시)-사목회, 성화회, 돈보스코회, 청년회 협조바람. 3. 돈·보스코회: 13일(수) 저녁7시 4. 구역반장회의: 14일(목) 오전11시 5. 본당, 교구사목 방문: 15일(금) 오전10시-사목입원, 단체장 참석바람. 6. 초등부 첫영성체 교리시작: 5월17일부터 오후1시30분. 대상-국교3학년부 7. 차주: ①바비의 성모Cu(후2시) ②교무금 납부주일 ☐ 지난주 봉헌금: 2,036,46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규

- ※ 성전건립 바자회에 협조해 주신 전신자께 감사드립니다.
※ 바자회를 위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동신자께 감사.
※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2차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1. 주교님 사목방문: 15일 후2시, 사목위원 모두 참여바람.
 2. 여성 제38차 프르실로 강습회: 14일~17일 기도 바랍니다.
 3. 첫영성체 대상자 접수: 17일까지. 예정일-6월1일 3학년
 4. 교도소 사목 후원회 야외미사: 11일 전10시 동산면
 5. 수녀 연합회 피정: 11일~12일 나바위 교육관
 6. 회의: 꾸리아-오늘 후2시30분, 자모회-13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17일 후8시, 청년회원 모두 참여바랍니다.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갑

1. 성모회·구역장월례회: 오늘 미사 후.
2. 사목회: 오늘 오후8시.
3. 반모임: 12일(화)오전-화산2(B). 오후-평화, 비사빌, 저녁-삼정2. 13일(수)오전-금하. 오후-화산2(A).
4. 자모회: 다음 주일미사 후.
5. 성소의 날 헌금이 있습니다.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윤금순, 김호성
차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 김영진, 이정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석희
사목회장이 동섭

- ※ 오늘은 부활 제4주일입니다.
1. 모임안내
①울드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모회-13일(수) 11시
③신영제자 컷고백: 12일(화) 후6시
* 오늘 성소의날 2차헌금있습니다.
(오늘 9시 복사단 신학교 방문)
 2. 관리장 채용
①30대이상 건강한 남자
②자필이력서 ※ 주택제공
 3. 차주미사안내: ①예인자의모후 ②천상의 모후
- ☐ 지난주 봉헌금: 1,267,410원 ☐ 교무금: 1,786,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의도

1. 성소주일2차헌금 있습니다. 2. 울드레아: 공식미사 후
 3. 빈첸시오회: 11(월) 오전9시
 4. 호도잔치: 공식미사 후 주관-여성부
 5. 예지자교리: 수요일 오전10시(수녀님), 밤8시(신부님) 주일 오전9시(수녀님)
 6. 성모회단합대회: 12(화)9:30까지 삼당집결, 장소-송광사 차주모임: 새벽회 신축헌금봉헌액-180,000원
금주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김창선 ②정영호
금주미사봉헌안내: 이교성 부부, 김용신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송재만 ②라화성
차주미사봉헌안내: 송하영 부부, 전형섭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1,191,850원 ☐ 교무금: 1,475,000원